



## 대학내 성범죄 만연... 5년간 320건 발생

### 가해자 교수가 가장 많아, 학내 성희롱 167건·성추행 133건·성폭력 20건

각계에서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인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고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대학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각종 성범죄가 수백건에 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교육부가 제출한 '학내 성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대학내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적발된 것만 3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5건 ▲2014년 40건 ▲2015년 63건 ▲2016년 75건 ▲2017년 107건으로 매년 학내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교육부가 국내 196개 대학 중 106개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통계 수치다.

학내 성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이 가장 많은 167건(52.2%)에 달하고 ▲성추행 133건(41.6%) ▲성폭력 20건(6.3%) 등이다. 그동안 사회적 여건이나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감춰져 있었던 성범죄에 대한 캠퍼스내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학내 성범죄들은 은밀하게 자행되거나 피해자가 고통을 받으면서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학내 성범죄의 가해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교수(교원) 72건 ▲조교 1건 ▲강사 9건 ▲직원 24건 ▲학생 214건 등이다. 가해자가 학생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교수(교원)로 나타났다.

한편 학내 성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의 경우 ▲2013년 14건 ▲2014년 12건 ▲2015년 42건 ▲2016년 41건 ▲2017년 58건으로 나타났다. 학내 성희롱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다음에 교수(교원)가 228% 순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추행은 ▲2013년 17건 ▲2014년 26건 ▲2015년 19건 ▲2016년 27건 ▲2017년 5건이다. 성추행 가해자들은 ▲교수(교원) 29건 ▲강사 2건 ▲직원 8건 ▲학생 94건이다. 학내 성추행가해자들 가운데 학생이 70.7%, 교수(교원)가 21.8%로 나타났다.

성폭력도 ▲2013년 4건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7건 ▲2017년 5건에 달한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교수(교원) 5건 ▲강사 1건 ▲직원 0건 ▲학생 14건 등이다. 학내 성폭력 가해자 역시 학생이 70%, 교수(교원)이 25%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학내 성범죄 발생 규모는 2013년에 비해 무려 3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반면, 같은기간 발생한 302건의 학내 성범죄 가운데 징계 건수는 65.3%(209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교수(교원) 등이 가해자가 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위계나 성적, 학위, 진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이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숨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학내에서 심각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각종 성범죄가 매년 빈발해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오랫동안 고통을 주고 있음에도 성범죄가 발생한 대학에서는 마치 제 식구 감싸기식의 숨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캠퍼스 내에서 버젓이 성범죄를 자행한 가해자들의 상당 부분을 징계조치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학당국이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과 다름없다.

장정숙 의원은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사회적 여건 변화 속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학내 성범죄들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심각한 고통속에 살아오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은밀하게 자행돼오던 캠퍼스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부도덕한 교수(교원) 등 가해자들을 퇴출시키고, 이에 상응한 응분의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과 교육부 당국 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복기자



“영인산자연휴양림으로 봄나들이 오세요” 겨울이 물러간 자리에 봄이 성큼 다가왔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고 낮 기온이 두 자릿수 영상으로 올라가는 등 봄기운이 만연한 영인산에 다양한 식물들도 서로 봄소식을 전하기 바쁘다. 지난겨울 유난히 강했던 추위를 이겨낸 풍년보, 노루귀 등 봄꽃들이 개화를 시작하였고, 매화, 산수유, 히어리 등의 식물들도 봄소식을 알리기 위해 예쁘고

### ‘한중 해저터널’ 도로·철도로 연결 동북아경제권중심의 발판으로 우뚝

#### 천안시, 국제세미나 개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한중 해저터널’의 연계로 한반도와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육상·해상 실크로드)가 도로와 철도로 연결돼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중 해저터널 국제세미나’가 천안시민과, 12개 시·군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9일 천안시청 봉사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제 세미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사전타당성조사 예산 국비 반영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해저터널’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연계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분위기 조성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권중 선문대학교 교수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효과제고 방안(부제:한

중 해저터널, 철도 페리를 중심으로)’에 대해 기초 발제자로 나섰다.

윤 교수는 한중 해저터널의 최적 노선으로 한국과 중국의 최단거리인 충청남도 서산시 대신항에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구간 325km를 제안했다. 약 122조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대책, 완벽한 설계기술, 첨단 시공기술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해저터널이 건설될 경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연결해 북한을 경유하지 않고도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될 수 있어 한국이 실크로드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터널지하공간학회장을 역임한 김상환 호서대학교 교수는 ‘한중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건설기술 고찰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초청강연자로 나선 리시

광 칭화대학교 교수는 시진핑 주석의 중요 지도사상인 ‘중국몽’과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제안한 중국 문화소프트 파워 발전 전략책임자로 ‘일대일로’와 슈퍼 동북아 경제권’에 대해 강연했다.

리 교수는 “일대’는 중국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말한다”며 “한반도와 일대일로가 도로와 철도로 연결돼 슈퍼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분영 천안시장은 “한중 해저터널은 역사에 이름을 남길 대단위 건설사업으로 새로운 국제 교통망 형성과 국가 미래를 개척하고 새로운 철의 실크로드를 열어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세미나를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가 가진 미래적 가치와 중국, 러시아 등 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제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기병기자

### 내포 예산지역 첫 공공임대주택 착공

#### 오는 2021년 5월 준공 목표

내포신도시 예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사가 시작했다.

충남도는 최근 내포신도시 예산군 삼교읍 RH6블록에서 LH공공임대 아파트 건설 공사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공공임대아파트는 오는 202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3월말까지 현장사무소와 가설을 타리 설치 작업이 마무리하고 내달 초부터 본격적인 터파기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에 착공한 공공임대아파트는 2만 9839㎡에 연면적 6만 1196.76㎡ 규모이며, 지하 1층, 지

상 12~20층으로 지어진다.

사업비 889억 원이 투입되며 △25㎡ 250세대 △26㎡ 192세대 △37㎡ 276세대 △46㎡ 136세대 등 총 5개동 854세대(국민임대 604호, 영구임대 250호)를 건설하게 된다.

지하 1층에는 주차장, 지상 1층에는 노인정, 작은도서관 및 보육시설 등 입주자 편의시설도 갖춰진다. 특히 공공임대아파트가 건립되는 RH6블록은 내포신도시와 삼교읍을 연결하는 제2진입도로에 인접해 있어 입지조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공공임대아파트가 건설되면 예산·홍성군 인근의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소는 물론, 내포신도시 예산지역 활성화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예산군 지역에 처음으로 건립되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서민 주거문제 해소와 내포신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포신도시와 예산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포신도시 내 공동주택은 총 20개 단지 2만 1896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개 단지 1만 164세대에 대한 공급이 완료됐고, 2개 단지 1671세대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정환기자

HYUNDAI MOTOR GROUP

## Mission for Human

현대파워텍의 변속기 기술은 인간을 위해 헌신합니다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속기 역시 그 목표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현대파워텍의 변속기가 탑재되었다는 사실은 곧바로

차량자의 안전과 통행에 대한 신뢰를 주고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느끼는 행복한 자동차 운행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현대파워텍이 인간을 위한 기술입니다.

HYUNDAI POWERTECH



# “합의에 의한 관계” 안희정 두 번째 검찰 출석

## 세 번째 폭로자 등장, 2차 피해 우려 법적 대응 하지 않을 예정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두 번째 검찰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19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면서 “아내와 가족,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안희정 전 지사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인들은 안희정 전 지사의 지위 때문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14일 오후 3시 30분 두 번째 피해자의 고소장을 서부지검에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은 1년 넘게 수차례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희정 전 지사 성추문 사건에 대한 세 번째 폭로자 역시 등장했지만 아직 고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피해를 우려해 법적 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희정 전 지사의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8개월에 걸쳐 안희정 전 지사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 6일 안희정 전 지사를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특히 안희정 성폭행 폭로 김지은 씨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자필 편지를 전하면서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 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수사 찬성 75.1%

### <KSOI> 조사결과

지난 14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하여 소환조사를 마친 가운데,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3월 16~17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하여 검찰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5.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지난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이 전 대통령측의 주장에 대하여, 정치보복이 아니다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72.5%로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에 앞서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생각에 반항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 국민 72.5%는 이런 이전 대통령의 의견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2.5%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수사라는 주장에 대하여 ‘매우 공감한다’ 7.8%, ‘대체로 공감한다’ 15.4%, ‘대체로 공감하지 않는다’ 14.9%,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57.6%, 모름/무응답은 4.2%였다. 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비공감’(72.5%) 응답은 연령별로 30대

(80.4%)와 40대(78.9%), 그리고 20대(77.4%), 지역별로 광주/전라(84.3%)와 인천/경기(76.1%), 직업별로 화이트칼라(81.0%)에서 다소 높았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89.6%),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3.4%), 지지정당별로 정의당(100.0%)과 더불어민주당(89.3%) 지지층에서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감한다’(23.2%)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31.4%)와 60세 이상(28.8%), 지역별로 대구/경북(41.4%), 직업별로 가정주부(28.5%)와 자영업(26.2%),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44.4%),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6.8%),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72.3%) 지지층과 무당층(27.5%)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난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75.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찬반 여부에 대하여, ‘매우 찬성한다’ 49.8%, ‘대체로 찬성한다’ 25.3%, ‘대체로 반대한다’ 12.7%, ‘매우 반대한다’ 7.1%였다. 모름/무응답은 5.1%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에 ‘찬성 한다’(75.1%)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84.3%)와 30대(82.6%), 그리고 40대(80.9%), 지역별로 광주/전라(88.1%)와 인천/경

김지은 씨가 안희정 성폭행 폭로 사건 이후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둘러싼 거짓되고 악의적인 이야기가 유포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안희정 성폭행 폭로 이후 김지은 씨 본인을 포함한 루머와 더불어 가족들까지 언급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허위 정보는 만 들지 말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김지은 씨 변호인 측은 ‘김지은 비서가 피해 사실을 기억에 있는 대로 차분하게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피해자인 김지은 비서를 향한 악의적 소문과 허위사실, 사회적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이는 2차 피해인 만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복 기자

기(79.6%), 직업별로 학생(81.6%)과 화이트칼라(81.1%), 정치이념 성향별로는 진보(90.5%),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5.4%), 지지정당별로 정의당(94.0%)과 더불어민주당(91.5%)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 한다’(19.8%)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8.5%)과 50대(26.0%), 지역별로 대구/경북(31.0%)과 서울(23.4%), 직업별로 무직/기타(28.0%)와 가정주부(22.7%),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37.0%),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0.2%),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68.9%)과 바른미래당(25.4%)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남북정상회담 및 개헌논란과 관련해 마련한 3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3월 16일~17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 수준이며, 응답률은 120%(유선전화면접 6.2%, 무선전화면접 16.3%)다. 2018년 2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이정복 기자

## 충남도립대 개교20주년 기념식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가 개교 20주년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직무능력 중심의 최고 공립대학’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충남도립대는 19일 대학 해오름관 다목적홀에서 학생·교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20년 전과 현재를 이어주는 20년사 동영상에 이어 허재영 총장의 감사패 및 장기근속자 포상 수여, 대학 비전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지난 20년간 충남도립대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 대한민국 최고의 공립대학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축사에서 “충남도립대학교가 학생들의 자부심과 지역의 자랑으로 계속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향해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 이어서는 20주년 기념식이 진행됐으며, 축하 내빈과 학생, 교직원들이 분관 1층에 마련된 기념물 전시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분관 1층에 마련된 전시관에는 20주년 기념 홍보관을 별도로 조성, 충남도립대 역사와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허재영 총장은 “충남도립대는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의 대학으로 자리매김 해왔다”면서 “개교 20주년을 계기로 향후 20년을 선도하는 중부권 최고의 전문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립대는 맞춤형 공채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난 20년 동안 총 700명의 공무원을 배출했으며, 지난 2014년에는 ‘공직 진출 특성화 분야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 지역대학으로는 드물게 대기업인 한화셀코코리아 공채시험에 합격자 24명, CJ제일제당에 공채 시험 6명의 합격자를 배출, 지역대학으로서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충남도립대는 교육부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CK) 전 분야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A’등급으로 선정됐으며, 교육부 산하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선정에 이어 기관평가인증 획득으로 대학 경쟁력을 확보했다.

# ‘모두가 주인공’... 2018 평창패럴림픽 폐막

## 총메달 3개 · 종합순위 16위로 역대 최고의 성적 기록



장애와 편견을 뛰어넘은 지구촌 겨울 스포츠 축제 2018 평창패럴림픽대회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18일 오후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폐회식 문화공연은 전통과 화합의 무대로 치러졌다. 장애와 편견을 극복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전 세계 567명의 패럴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모두가 주인공이었다.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개최된 평창 동계패럴림픽은 6개 종목에 49개국, 1500여 명의 선수단(선수 567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이다. 대한민국은 총 메달 3개(금 1, 동 2, 종합순위 16위)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 또한 이번 패럴림픽은 북한 참가 등으로 남북 간의 평화 조성에 기여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출전해 우정의 레이스를 펼친 이번 대회는 값진 대회 운영,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의 경기 관람 등으로 합격점을 받았다. 특히 입장권은 33만5000여장이 팔려 목표량(22만장) 대비 152%의 높

은 판매율을 보였다. 입장권 수익도 66억 6000만 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대회 기간 평창올림픽프라자, 강릉 올림픽파크 등에 총 32만 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동계패럴림픽 첫 금메달과 동메달 2개로 종합순위 공동 16위에 올랐다. 한국은 6개 전 종목에 선수 36명이 참가해 신의현이 크로스컨트리 좌식에서 26년 만에 첫 금메달을 따냈다. 장애를 초월한 선수들의 열정과 스포츠 정신이 선출한 감독과 함께 대회 운영과 흥행, 기록 면에서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19일 오전 10시 45분 평창 패럴림픽 선수촌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참여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해단식이 열렸다. 해단식에는 문체부 도종환 장관을 비롯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 배동현 선수단장과 선수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복 기자

#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공주’ 선포주간 성료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세계유산을 품은 명품 관광도시 공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 주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시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을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공 의지를 다졌다. 특히, 선포 주간에 앞서 13일부터 16일까지 16개 읍·면·동 212개 마을을 순회하는 성화봉송을 진행,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알리고 선포주간의 사전 분위기를 조성했다.

는 다양한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으로 주말 선포식장을 찾은 많은 관광객에게 공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을 알렸다. 또한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공주’의 중요 프로그램인 야간상설 마당 1500년 전 한류 ‘백제미미지탈이 온다’와 원도심 일원에서 진행되는 ‘아티스트 거리공연’이 본격적인 사업 전에 선보여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총 17개로 백제의 웅장한 역사를 느껴볼 수 있는 ‘왕도미션투어’와 근대문화유산이 산재된 원도심을 중심으로 ‘공주의 숨은 매력’을 느껴보는 ‘소문난 칠공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 관광 기반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시덕 시장은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공주의 원년을 맞아 세계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만든 축제공원이 함께하는 공주,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가장 '자연'스럽게 달리는 기술

빠르게 달리는 기술에서 안전하게 달리는 기술까지 Enfren은 수많은 첨단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기술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고 만들어지는 기술입니다. Enfren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고 만들어진 친환경 '엔프렌'이 더 나은 달리기 환경을 만듭니다.

**enfren**  
엔프렌 효과란? 엔프렌은 공기 저항을 줄여 주행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HANKOOK**



# 홍성군 2018 행복한 도시 만들기 시동

## “원도심 스마트 쌈지 주차장 · 도로표지판” 공모사업 선정

홍성군은 지난 3월 15일 충청남도에서 주관한 2018년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 사업에서 ‘쌈지 주차장’과 ‘도로표지판’ 부문에 각각 선정 되어 사업비 9억5천여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군은 홍성을 오관리 일원 기존 도심지의 정주환경 문제점인 좁은 도로와 주차공간 부족, 원도심의 폐가 및 유흥지 방치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점차 심각해지는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조성될 쌈지 주차장은 총 7억 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방치되어 있는 홍성읍 오관리 옛 홍성고 관사부지 617



m에 위치할 예정이며, 작은 주민센터도 마련할 예정이어서 지역주민 및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 해소와 원도심내 도시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홍북읍 군도 4호선 일원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약 2억5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명표지판 5개를 신설하고 7개를 정비하는 등 도로·교통 표지 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정주환경 개선과 도로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김정한기자

### 아산시 축산농가 현장지도

구제역 항체형성을 향상 위해 실시

아산시는 2018년 3월부터 구제역혈청 검사 결과 항체형성률이 저조한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를 우선적으로 항체형성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환으로 수시접종 시 농가자체접종에서 공수의와 협조해 공수의 접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구제역은 우제류(소, 돼지, 염소, 양 등)에게 취약감소성 성장지연, 생산성저하로 축산농가 수입 감소 및 연관 산업 침체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가축질병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관리해야 하는 제1종 법정 전염병이다.

김판태 축산산과장은 “구제역이 우리 축산농가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법정전염병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해 철저한 예방접종 및 소독, 차단 방역으로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테콤빌딩 7층

### 새마을금고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는 모바일 ‘상상 사이트 대출’ 출시

새마을금고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금고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상 사이트 대출’을 출시했다. 사이트 대출 모바일 상품 출시는 상호금융업권 최초이다. 이번 신상품은 기존 새마을금고 사이트 대출의 모바일 버전으로서 고객이 새마을금고의 모바일 뱅킹인 ‘상상뱅크’ 앱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스크래핑 서비스를 활용해 별도의 제직, 소득 증명서류 제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모바일 우대금리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 대상은 연소득 2천만원 이상, 현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재직된 근로 소득자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2천만원, 대출 금리는 10% 내외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번 모바일 대출 출시로 영업시간 중 금고방문이 어려운 고객들도 손쉽게 새마을금고 사이트 대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상호금융 사이트 중금리 대출은 10% 내외의 금리로 은행과 저축은행이 공금중인 사이트 대출의 ‘사이트 사이의 사이트’ 역할을 해 중금리 시장을 더욱 탄탄하게 형성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이다.

송병배기자



아산=리량주기자

###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무료 노동법강좌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아산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무료 노동법강좌를 운영한다.

오는 27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서 9시, 총 5강으로 4월 2일까지 센터 내에 있는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휴일근로, 근로시간, 연차휴가, 산재 등 많은 부분의 노동법이 개정됐다. 이번 강좌에서 개정 노동법을 중심으로 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와 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궁급증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 임금체불 및 산재, 징계, 부당해고 등 권리침해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한다.

강사는 법무법인 ‘어느’의 김유정변호사, 이두규변호사, 이서용진노무사가 직접 강의한다.

강좌신청은 노동자와 아산시민이면 누구나 무료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23일까지 전화 (534-3626) 또는 이메일 (ktctcras@hanmail.net)을 통해 접수한다. 선착순 30명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

### 노동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법적인 권리 무료노동법강좌

- 일시: 3월 27일(화) ~ 4월 2일(화) 19:00~21:00
- 장소: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교육장
- 대상: 아산시민, 노동자, 학생 누구나.
- 참가신청: 3월 27일(화) ~ 4월 23일(화)까지, 선착순 30명
- 참가비: 무료
- 접수: 3월 23일(수) 18:00 ~ 3월 23일(수) 21:00

강좌명	구분	주최	내 용	강 사
3/27(화)	1강	현행 노동법	현행 노동법 개정 사항	김유정 변호사
4/3(화)	2강	근로시간	근로시간, 휴일, 휴무시간	이두규 변호사
4/10(화)	3강	임금	임금체불, 임금징수	이두규 변호사
4/17(화)	4강	징계	징계, 부당해고	이두규 변호사
4/24(화)	5강	산재	산재보험, 산재	이두규 변호사

아산=리량주기자



### 칠갑마루 완속토마토 올해 첫 출하

칠갑마루완속토마토 공선회(회장 이기명)는 19일 정산농협 경제종합센터에서 강준배 부군수 및 김태영 정산농협조합장을 비롯해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출하식을 가졌다.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지원하고 정산농협에서 육성하고 있는 칠갑마루완속토마토는 칠갑산을 중심으로 비옥한 토양과 일교차가 큰 기후 등 시설채소 재배지의 좋은 조건을 갖춘 청양에서 재배돼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청남·장평면 지역 완속토마토 재배 농가 약 30여호가 생산해 대형마트, 서울 농산물시장 등에 출하, 오는 6월 말까지 10

여명의 농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준배 부군수는 “최근 낮은 토마토 가격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공선조직을 더욱 확고히 하고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해야 교섭력을 높이고 수취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기존의 개별출하 구조에서 대형마트와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연합사업 출하 구조로 변경되고 있는 전국적인 추세를 반영해 토마토를 비롯한 공선조직을 탄탄하게 육성하고 GAP 등 차별화를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청양=정상범기자

### 철도공단 노·사 공동 안전결의 · 무사고 기원

내부고객 만족에서 외부고객 감동으로 안전한 철도건설 다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7일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현장 인근의 용봉산(충남 홍성군 소재)에서 2018년 철도건설현

장 무사고 기원과 최고 품질의 철도건설 공공기관으로 도약을 다짐하고자 전·현직 임직원, 가족 그리고 노동조합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결의 및 시산제를 시행했다.

철도공단은 김상균 이사장의 3대 경영방침 중 안전품질 강화를 위해 안전품질 조직을 대폭 확대(1실→1본부 2처)할 예정으로, 신바람 나고 자부심 넘치는 최고의 공공기관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올해 철도건설과 개량사업으로 추진할 사업비가 약 8조원 규모이며, 이중 약 4조원 이상을 조기 집행해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건설 중 안전사고 예방과 최고품질의 철도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16일에는 서해선(홍성~송산)복선전철(연장 9001km)건설현장을 방문, 서해선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안전철을 횡단하는 국내 최대대 아치교(연장 625m)인 아산고가 등 주요공사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송병배기자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 고등어·명태·갈치·오징어 판매가격 절반 '유통비'

## 해수부, 2017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성인지 감수성제고 및 성희롱예방' 통합교육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수산물 소비자 가격의 절반 이상은 유통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결과 고등어·오징어·갈치·명태 등 4개 품목의 판매 가격에서 유통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1.8%로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2016년 기준 쌀·감자·고구마 등 농산물 주요 품목의 평균 유통비율이 53.4%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명태의 유통비 차지 비율이 6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등어 56.7%, 갈치 44.7%, 오징어 45.9% 순이었다.

지난해 수산물 총 생산량은 374만 3천 톤으로 '16년(327만 톤) 대비 14.5% 증가하였으며, 이 중 양식어업 생산량이 231만 톤으로 '16년(187만2천톤) 대비 24.3% 늘어나며 전체 생산량의 62%를 차지했다.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2.1%, 3.5% 증가한 92만 7천 톤, 47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16년 기준 수산물 국내생산량은 327만 톤, 국내소비량은 439만 톤으로 '16년 수산물 자급률은 '15년(71.5%)에 비해 소폭 상승한 74.5%로 파악되었다.

지난해 수산물 전체 계통출하율은 39.4%로 조사되었다. 그중 연근해 수산물의 경우 계통출하가 87%, 기타 유통도매업자 등을 통한 비계통출하가 13%를 차지하였다. 가장 많은 물량이 유통되는 곳은 지역 전통시장(35~40%)으로, 소비자 도매시장(17~22%)에 비해 2배 가량 많았다.

양식산 수산물의 계통출하율은 28.8%이며, 이 중 생산액 비중이 가장 높은 활어(34.2%)의 경우는 약 40%가 계통출하, 나머지 60%가 산지 수집상을 통해 출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양산 수산물의 경우 원양선사와 도매업자간의 거래를 통해 저장·가공업체로 유통되는 비중이 40~45%, 소비자 도매시장과 전통시장으로 유통되는 비중이 35~4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7년 수산물 유통시설 및 종사자 현황

'16년 기준 전국의 산지위판장은 213개이며, 총 거래물량은 114만 4천 톤, 거래금액은 3조 5,749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거래되는 수산물 형태는 선어가 51.1%로 가장 많았다. 산지위판장의 유통종사자는 총 7,14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중도매인이 3,744명으로 52.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전국의 소비자 도매시장 중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매시장은 총 18개소로, 거래물량은 41만 4천 톤, 거래금액은 14,731억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생산자 개인 출하 비중이 4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유통종사자는 총 3,355명이며 중도매인이 1,507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국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연간 매출액은 대부분(77.3%) 10억 원 미만에 불과하여 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수산물 품목별 유통실태

품목별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고등어는 99%를 계통출하하고 있으며 최근 자원감소 및 소형화로 인해 저장·가공업체로 유통비중(60%)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의 계통출하율은 64.6%이며, 오징어 선어의 경우 소비자 도매시장으로의 유통물량(3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치는 98.8% 계통출하하고 있으며, 갈치 선어의 경우 지역전통시장(소매상)으로 38%, 대형소매업체로 30%가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양어업 생산량이 100%인 명태는 전량 냉동형태로 비계통출하되고 있으며, 가공업체로의 유통비중(54%)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개 대중성 품목의 유통비용 조사결과, 유통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명태 66.3%, 고등어 56.7%, 갈치 44.7%, 오징어 45.9%로, '17년 생산량 가중치를 적용하면 4개 품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1.8%로 확인되었다.

즉 수산물 소비자가격을 1,000원이라 가정하는 경우, 생산자 수취가격이 482원,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유통비용이 518원을 차지한다. 이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유통비용은 산지에서 83원, 도매 단계에서 140원, 소매 단계에서 295원이었으며, 소매단계에서 유통비용이 높은 이유는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추가비용 발생, 손질 및 포장 등 상품성제고 노력, 매장 유지관리비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수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전반적인 유통현황을 보여주는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수산물 유통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유통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방포항에서 어선과 급유선의 충돌을 가정하여 신속한 대응에 대비를 위한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을 가졌다.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 공주남성영양소방대는 지난 18일 계룡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불철 산불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홍보용 전단지 및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대대적 홍보를 펼쳤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한 '평창 패럴림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산시협의회(회장한기영)는 지난 13·14일,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아산시 북한이탈주민센터 자문위원 33명이 함께 2018년 평창 패럴림픽경기 관람 및 강원도 일원으로 통일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전소년원(원장 이영호)은 지난 16일 다빈치병원(원장 안병희)과 원생들의 의료처우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원생들에게 신속한진료 실시, 의료비 감면 혜택 및 진료편의 제공,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지원활동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대전현충원(원장 권윤성)은 제3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수호(제2연평해전, 천안함피격, 연평도 포격전)의 내용을 담은 '서해수호 55용사 안내판'을 보존동선에 설치하고 지난 17일 제막행사를 가졌다.



부여읍의용소방대(서장 유현근) 부여읍 남·여의용소방대원들은 지난 16일 오후 부여읍 염창리 일대 마을에 주택화재경보기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 날 보급행사는 부여읍 남·여의용소방대원 70여명이 참여했다.

## 천안동남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사고 방지 집중 홍보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경호)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고 방지를 위한 집중 홍보활동에 나섰다. 19일 밝혔다.

천안동남소방서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해 화제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도 소방본부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건이던 소방관 폭행 사건은 지난해 13건으로 30% 증가했다. 이중 술에 취한 음주자가 폭행하는 비중이 100%(2017년 기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은 환자 처치와 이송에만

집중해야 하는 상황 이따보니, 폭행을 당해도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다.

김경호 천안동남소방서장은 "사고현장 출동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공무원행위처벌에 해당된다."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안=채기병기자

## 대덕구, 새봄맞이 불법광고물 내달 13일까지 일제 정비

본격적인 행락철 시작되는 시기 맞아... 불법광고물 정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가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내달 13일까지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옥외광고문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신탄진IC, 대전IC 등 주요관문과 신탄진동, 중리동 등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부분별하게 부착되고 살포된 현수막,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김태선기자

집중정비 대상으로는 신탄진동, 중리동 등 상가 밀집지역내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등의 입간판 ▶대출·대리운전 등의 홍보용 명함형 전단 ▶주요도로변 아파트 분양, 가구·가전 대리점, 공연 등 상업용 불법현수막이며, 적발된 상습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발생 억제를 위해 올바른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반을 운영하고 단속 취약지역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도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아산소방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오는 26일, 충남도청 문예회관 강당에서 열리는 충청남도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아산소방서 대표 출전팀은 연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을 함양시키고 목적지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심정지 환자 소생을 향상을 위하여 개최된 대회로 최우수팀 1개팀이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대회는 각 소방서별 3인 이내로 구성된 1개 팀이 스토리를 가지고 심폐소생술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것으로 아산소방서에서는 삼삼디스플레이 직원 3명이 '이왕 하는 거 우승까지'라는 팀명으로 소방서 대표로 출전하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맹훈련 중이다.

아산=리량주기자

daejontoday.com

## 청양경찰서, 노인교통사고 예방 간담회



청양경찰서(서장 고재권)는 지난 16일 대한노인회 청양군 지회장과 읍·면 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18년도에 청양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모두가 노인교통사고인 만큼 취약시간대 노인 보행자 보호를 위한 노인 안전

## 넷임팩트코리아 이형기 대표 초청 워크숍

대전대 인문영재교육원, 100여명의 학생들 대상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인문영재교육원(원장 박성욱) 교수는 지난 17일 둔산동 교육대학원 컨벤션홀에서 넷임팩트코리아의 이형기 대표를 초청, '디자인싱킹 기반의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회와 국가·민족 및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바른 삶을 추구하는 도덕적 심정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초등

학교 6학년부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구성된 100여명의 인문영재교육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디자인싱킹'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외형적 디자인에 대한 미학적 접근방식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의해 공감하고, 대중 자신도 모르고 있는 잠재적 욕구를 발견함으로써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팀 중심의 협력적 문제해결 접근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정복기자











통정

시장과의 만남의 날 개최



오시덕 공주시장은 20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행복 한 동행 시장과의 만남의 날을 개최.

기업인 대표자 회의



김동일 보령시장 = 20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기업인 대표자 회의,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참석, 오후 3시 시장실에서 민원상담의 날 운영.

유용미생물 활용기술교육



이완섭 서산시장은 20일 오후 2시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유용미생물 활용기술교육에 참석, 오후 2시 30분 예천2동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예천2동 마을학교 개강식에 참석.

관내 사립유치원 현장 방문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관내 사립유치원(공주영상대부설유치원 외 2원)을 현장 방문.

학생상담지원봉사자 협의회



조민행 보령교육장은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회 의실에서 열리는 2018 학생상담지원봉사자 상반기 협의회에 참석.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행안부장관상' 수상

예산 투명성·건전성 확대 결과

서산시가 행정안전부의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대토론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해 도시형과 도농형 구분했고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전국 118개 도농형 기초지자체 중 서산시가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이는 서산시가 예산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는 평이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직접 읍면동을 찾아가 예산학교를 실시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했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공모로 선정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민회의를 개최하고 퍼실리테이터 기법,



현장 전자투표를 통해 144개의 제안사업을 발굴했다.

청소년정책참여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특목 특위 정책의견을 수렴하는 등 청소년의 직접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

민의 의견을 소중히 전달받아 투명하게 실천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평가 등 예산과정 전체로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학교급식지원센터 컨퍼런스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지난 16일 농업회관에서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오시덕 시장을 비롯해 교육청관계자, 각급 학교장, 영양(교)사, 농산물 생산자, 학부모 대표, 유통배출업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장이후의 운영성과 분석과 함께 앞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이어,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스템과 농산물, 식재료 등을 직접 둘러보며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을러, 공주시생생자협동조합에서 생산한 농산물 전시를 통해 식재료의 신선함과 안전성을 홍보하는 등 그동안 급식용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한 농업인의 애로에 공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시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무선투표기를 활용해 수렴된 의견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정책수립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학교급식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건강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3월부터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재료비(1인당 2250원)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유치원 학부모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직접 당일 공급할 수 있게 돼 아이들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시는 올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특수)학교 1만 4828명에게 49억 9천여만원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 적정비율 위해 관내 대학교, 공공기관 등 5000여명 참여를 목표로 공공급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홍숙 농정유통과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생산자, 교육기관, 학부모 등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수혜자 중심의 학교급식정책을 수립하는데 한미당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청취와 교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주만의 고유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우리/동네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조성한다

보령시가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동 확충을 위해 19일 오후 2시 시장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수탁기관인 이현석 성보 의료재단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능보강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치매전문병동이 미설치된 공립요양병원 중 인력 및 병상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기능보강비 지원을 통해 치매전문병동 설치, 프로그램실 확충, 치매 진단·치료 장비를 갖춰 시연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집중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시의 노인 인구는 3만2009명, 보건소 치매환자 등록인원은 1772명, 추정인구는 2409명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잠재적 치매환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시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재가 치매 환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예방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한 종합적 의료서비스가 치매 환자 증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비 12억3800만 원과 시비 3억3600만 원 등 모두 15억7400만 원을 투입해 3층과 4층 각 15개씩 30병상을 증축하고, 2개 병실 10병상은 리모델링 등 모두 40병상을 오는 10월말까지 조성하게 된다.

또 원예, 가족, 인지치료 프로그램실 조성, 환자 감시 장치 모니터 등 32종, 127개의 의료장비를 구축하고, 치매전문병동 운영 시작에 맞춰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 1인 이상, 치매환자 치료와 장비 운영에 필요한 작업치료사 등 적정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시립노인전문병원에 치매전문병동 확보로, 올해 상반기 보령시노인종합복지관 내 신속 예정인 치매안심센터와 더불어 날로 늘어나는 치매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시설의 조속한 확충으로 치매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서적 안정까지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보령=김태성기자

야외체육시설 신규 설치 추진

서산시, 시민들 건강 증진·생활체육활동 촉진

서산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활동 촉진을 위해 1억 5천만원을 투입해 야외체육시설을 신규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27개소에 80여점의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양팔줄당기기, 허리 돌리기, 근활차머신 등 호응도가 높은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민들의 기호 충족과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률을 파악해 차후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노후 운동기구는 수리하고, 활용도가 낮은 체육시설은 이전 설치하는 등 기존 시설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쾌적한여가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석봉 서산시 체육진흥과장은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서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금산군 안전 농산물 생산 소비자 신뢰확보 구축

GAP 농업인 안전농산물 생산 다짐대회·충남지부 발족

금산군은 지난 16일 금산다락원에서 (사)대한민국GAP연합회 주관으로 치러진 2018년 제1차 GAP 농업인 안전농산물 생산 다짐대회 및 충남지부 발대식을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유통소비정책관, 농촌진흥청 이규성 차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이흥기 회장을 비롯한 인사·객원 재배농가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신선농산물이 생산, 유통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자고 마련됐다.

(사)대한민국GAP연합회에서는 2018년을 GAP 활성화를 위해 새 로이 출범하는 해로 정하고 제1차 GAP농업인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다짐 결의의 낭독 및 충남지부 발대식을 가졌다.

농가대상교육은 (사)대한민국GAP연합회 정덕화 회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황신구 과장, 농촌진흥청 나상수 과장을 초청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및 관련 규정의 이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

리제도(PLS)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 농업인들이 궁금해 하는 핵심내용 위주의 교육으로 호응을 이끌어 냈다.

신기영 금산부군수는 "이번 행사·교육을 통해 안전한 금산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인사, 객원 재배농가 700여명에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GAP 기본교육 이수증이 발급된다.

금산=주연기 기자

Advertisement for 'MODERN TRADITIONAL HOUSES' featuring images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and descriptive text in Korean.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t the bottom: BEST PLAN, 대표 박정호, FAX 042-624-1204, HP 010-7472-4972, pjmin71456@hanmail.net, 대전투데이 대전구 오정동 454-6번지 2층

오늘의 하이라이트

역류 (MBC 오전 7시55분)



나, 강백산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야. 동빈이 두 개의 핸드폰을 사용 중인 것을 말하며 유란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보스'가 동빈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이야기하며 유란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해피시스터즈 (SBS 오전 8시20분)

화영의 거짓입신과 가짜유산을 밝히기 위해 진섭의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마두수를 데려온다.

케이블 명화

임금님의 사건수첩 (OCN 오후 6시30분)

<임금님의 사건수첩>은 예리한 추리력의 막부 가내 임금 예종(이선균)과 천재적 기억력의 어리바리 신입사관 이서(안재홍)가 한양을 뒤흔든 괴소문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과학수사를 벌이는 코믹수사물극.

모든 사건은 직접 파헤쳐야 직성이 풀리는 총명 한 왕 '예종'(이선균). 그를 보좌하기 위해 학식, 가문, 외모(?)는 물론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비사한 재주까지 겸비한 신입사관 '이서'가 임명된다.

때마침 한양에 괴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예종은 모든 소문과 사건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다.

예종과 이서는 모든 과학적 지식과 견문을 총동원, 괴소문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나서는데...!

사건 쫓는 임금 X 임금 사관은 신입사관 궁 넘고 담 넘는 유쾌한 과학수사가 시작된다!



형주, 가족들 모두가 마두수의 말을 숨죽여 기다리고, 회의실엔 긴장감이 감돈다. 한편, 재웅이 곤란해지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도훈과의 친구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상은은 도훈에게 더 이상 작업실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선언 하는데...

파도야 파도야 (KBS2 오전 9시00분)



정훈(장재호)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육분(이경진)은 순영(서하)에게 점점 마음을 열고 미진(노홍철)은 정훈에게 조바심을 낸다.

디센던트 (채널CGV 오후 8시00분)

<디센던트>는 무미건조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던 한 남자의 깨달음에 관한 영화다. 또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조명하는 작품.

2012 아카데미 주요 5개 부문 노미네이트! 2012 골든 글로브 최우수 작품상, 남우주연상! 경이로운 감탄과 전율!! 전 세계 영화상을 휩쓴 최고의 화제작!

뜻하지 않은 아내의 사고! 그동안 몰랐던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된 남자의 이야기!

잘 나가는 변호사 맷(조지 클루니). 그의 아내가 어느 날 보트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다. 아내의 사고에 절망한 맷은 막내 딸과 함께 가족사에 있는 큰 딸 알렉산드라(세일린 우들리)에게 엄마의 상태를 전하러 가지지만, 그간 일에 매달려 가족에게 소홀했던 사이 부적 커버넌 딸들과의 소통이 법정에서의 변론보다 어렵다.

평온하다고 생각했던 한 남자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들어닥친 텔레마! 그의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된다!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대전현충원, 제3회 서해수호 건기대회 성황

서해수호 용사 55명을 추모하며 5.5km 걷기



국립대전현충원은 지난 17일 오전 보훈공영장에서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해 '제3회 서해수호 건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건기대회는 북한의 도발로부터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자를 추모하고 나라사랑정

신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시작에 앞서 '서해수호 용사 안내관 제작식'이 거행됐으며, 국민의례, 원장 인사말, 대전광역시해군교실에서 제작한 '서해수호용사 배지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건기대회는 서해수호 용사 유가족, 시민, 학생, 보훈단체, 해군 참모총장 및 해군장병, 해군의장대,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현충탑 참배 후, 천안함 46용사 묘역, 연평도 준위 묘소,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자 묘역에 참배하고 보훈돌레길(쪽빛길)을 포함해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5.5km 코스를 걸었다.

부대행사로는 해군 근역대 공연, 추모엽서 쓰기, 무료음료 나누기와 1인 1건의 경품만 받을 수 있는 '블린 경품 업적 시행' 제도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처음으로 경품추천이 실시되어 대전현충원은 밥솥을 해군에서는 이직시험 모형 등을 제공했다.

권용정 원장은 "이번 건기대회를 통해 서해수호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55명의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아산시 여성회관

'분재' 특강 운영



아산시 여성회관관장 권순미(미)은 오는 4월 3일부터 25일까지 '기초부터 배우는 분재 특강'을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분재의 다양한 수형을 기초부터 배우 자연의미를 살릴 수 있는 분재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분재는 나무를 자연의 운치 그대로 화분 속에 연출하는 예술 활동으로, 분재를 가꾸며 정서함양과 함께 웰빙시대에 가족정원을 만들어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4월 한 달간 주 2회(화·수) 운영되는 이번 강좌는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3월 26일부터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http://woman.aesan.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접수해야 하며 아산시민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강좌에 대한 세부사항은 여성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여성회관 ☎041-536-84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여성회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문화생활 향유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리정주기자

'슈츠(Suits)' 첫 촬영 스틸 공개...4월 25일 첫방 확정

두 남자장동건, 박형식의 첫 촬영 스틸 전격 공개 '눈길'



2018 최고 기대작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슈츠(Suits)'(극본 김정민, 연출 김진우/제작 몬스터 유니온, 엔터테인먼트퍼펙스가 오는 4월 25일 첫 방송된다.

장동건, 박형식이라는 최강 투톱 남자 배우의 출연 소식만으로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드라마 '슈츠(Suits)'. 그 배일이 벗겨지길 많은 예미 시청자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일 '슈츠(Suits)'를 이끌어갈 것인 두 남자장동건(최강석 역), 박형식(고연우 역)의 첫 촬영 스틸이 전격 공개됐다.

각기 다른 곳에서, 각자 슈트 차림으로 첫 촬영을 진행한 두 배우. 이들은 첫 촬영부터 캐릭터를 완벽히 그려냈다. 뿐만 아니라 2인2색 두 남자의 전혀 다른 매력까지 보여줬다.

먼저 장동건은 극중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전설적인 변호사 '최강

석'으로 분한다. 이른바 모든 것을 다 가진,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멋진 남자인 것. 이를 보여주듯 장동건은 여유로운 표정에 카리스마와 럭셔리한 분위기가 모두 담여냈다. 캐릭터와 딱 맞아 떨어지는 장동건의 모습이 시선을 강탈한다.

'신사의 품격' 이후 6년만에 안방극장 복귀작으로 '슈츠(Suits)'를 선택한 그는 참치를 포착한 스틸만으로도 "역시 장동건"이라는 감탄을 자아낸다. 천재적 기억력을 탑재한 가짜 신입 변호사 '고연우' 역의 박형식 역시, 특별한 존재감을 보여준다. 풋



'의당초치'가기는미를 공부방 운영 의당초등학교(교장권영미)는 지난 16일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의당초치가기는미 공부방 1,2호점을개장했다.

케이블 & 위성 방송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and their programs, including OCN, MBC, SBS, YTN, and others.

Advertisement for Daejeon Today (대전투데이)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logo.



데스크 칼럼

‘국립철도박물관’ 의왕시에 뺏겨서는 안된다



이정복 기자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립철도박물관은 대전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이 국립 철도박물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누가 봐도 의왕시에 있는 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립철도박물관 설립을 추진하다 돌연 중단했다.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대전시는 민관 합동으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철도박물관 건립에 대전이 최적지라는 점을 홍보했다.

특히 1관과 2관 사이에 '도심 증기기관차가 대전선 위를 왕복 운행' 토목 철도박물관 명목이자 독특한 경관을 제공하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렇듯 대전시는 오래전부터 지역의 특수성과 기존의 철도인프라를 장점으로 내세우며 철도박물관 유치가 시활을 걸어왔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립철도박물관 입지는 사실상 의왕시로 결정되면서 대전의 철도박물관 유치는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 대해 최근 대전시의회의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별위원회와 국립철도박물관 대전유치위원회는 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왕발(發) 법안

을 겨냥 "균형있는 지역 개발을 무시한 수도권 위주의 밀집행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왕 철도박물관의 대지면적이 2만8082㎡, 건축면적은 479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립철도박물관은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지역 이기주의로 결정돼선 안 된다"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제는 상황이 대전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국립철도박물관' 법률 제정안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철도박물관 유치는 대전에게는 향후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나몰라라'하며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나 대전시의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립철도박물관법안 폐기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대전과 함께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추진한 충북은 법안 발의 직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조직적 대응에 나섰지만, 대전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철도박물관 유치에 뛰어들어 이시

중 충북지사가 최근 간부회의에서 이 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방안 강구를 지시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객관적으로 봐도 국립철도박물관 입지는 대전이 제격이다. 대전에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가 위치해 사실상 우리나라 철도의 메카이다.

의왕시를 국립철도박물관 입지로 정하려는 '국립철도박물관법안'을 반드시 폐기해야 이유가 여기 있다.

대전시민들은 그동안 정부만 믿고 기다렸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와 결정을 기대했다.

지금 대전시와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국립철도박물관법안 폐기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립철도박물관 입지는 의왕시로 결정되는 것과 다름없다.

사설

심화되는 소득양극화 개선해야

지난해 고소득자는 소득이 늘어난 반면 저소득자는 줄어들며 소득양극화가 심화했다.

또 개인 소득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가구 평균 소득과 소비가 줄었다.

신한은행은 전국민 20~64세 금융 소비자 2만명을 대상으로 금융생활 현황을 조사한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12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민(322만원→341만원)과 사무직·공무원(302만원→311만원), 자영업자(275만원→309만원) 등 고소득 직업군의 월평균 소득은 늘었다.

이외달리 판매 서비스·기능·생산직(248만원→239만원)과 프리랜서(185만원→148만원)는 감소했다.

근로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304만원→319만원)은 늘어나며 300만원대에 안착했지만 비정

규직(210만원→174만원)은 100만원대로 떨어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 격차는 15배에서 1.8배로 커졌다.

월평균 가구소득도 양극화가 심화했다. 월 700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천3만원으로 전년 대비 35만원이 늘었지만, 300만원 미만 버는 가구는 186만원으로 7만원 줄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가구소득 격차는 5배에서 5.4배로 커졌다.

전체적으로 개인 근로 및 사업 소득은 월 평균 285만원으로 전년 대비 2만원 늘었지만 가구소득은 463만원으로 전년 대비 5만원 줄었다.

지난해 가구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도 245만원에서 228만원으로 17만원 줄었다.

정부는 심화되는 소득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비리 공무원 무관용’ 공염불 대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비리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다시 등장했다.

문제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이 과거 정부에서도 수많은 강조된 원칙이라는 점이다. 직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넘는 금액·향응수수는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인사

규정을 바꾼 적도 있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업단'을 의치기도 했다.

공무원 부패 척결을 향한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단순히 처벌규정을 늘리고 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기고

평창패럴림픽, 장애인 스포츠 문화 저변 확대 계기로



육근해 한국점자도서관 이사장

버지의 손을 잡고 다니던 어린 나는 이유도 모르고 그런 차별과 멸시를 받았다.

1988년 처음 열린 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차별과 멸시는 '장애인우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동정과 연민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년이 더 흐른 지금 급변한 사회 환경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정책도 많이 변했다.

그 결과 장애인 기관에 후원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여전히 장애인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주민결사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고 마는 상황이다.

2011년 대구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에 의족 스프린터로 알려진 피스토리우스가 출전했다.

사기였는데 그는 자신의 실력은 그의 의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훈련을 했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모든 일에 있어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손을 사용하는 게 다르듯이 장애와 비장애는 같은 일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것뿐이다.

장애라는 것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뿐이라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은 교육으로만 안 된다.

교육으로 장애를 이해하고 복지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봉사하고 후원을 하는 것이지 장애인을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이다. 반면 문화와 스포츠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만나고 함께 즐기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장애와 비장애는 단지 모습이 다를 뿐이라고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 예술인을 육성하고 장애인 스포츠 메달리스트를 육성하는 것 중요하다.

장애인 예술관, 장애인체육관이 아닌 모든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평창패럴림픽이 모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어디서나 문화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태안 송암초 '거점형 학교체육시설'로 지정

태안 송암초등학교가 도내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거점형 학교체육시설'로 지정됐다.

태안군과 태안군장애인체육회는 지도자 배치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 유형과 중증 정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이런 지정에 따라 태안 송암초등학교는 지역 내 장애인 누구나 사용에 제약 없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된다.

지정 될 수 있게 협조해 준 송암초등학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하며, "이번 지정은 계기로 도내 15개 전 시군에 거점형 학교체육시설이 지정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태안 송암초등학교에서 도 장애인체육회, 태안군장애인체육회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 및 현관 전달식을 개최했다.

김정환 기자

서해수호의 날 우리 하나 되자

기고



황순창 대전지방보훈청 주무관

움에 처하게 했다. 고려와의 전쟁으로 죽음을 위기까지 겪은 당대들은 유언에서 "고구려를 치지 말라. 나의 실패를 되풀이 하면 사직을 지키기 어렵다."며 고구려를 두려워하였다.

고구려를 두려워하였다. 사실 고구려는 세계 최대 강국인 수와 당나라에 비해 인구, 병력, 경제력 등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국력에서 밀려 있었다.

이와 같이 자랑스러운 고구려 역사 밑바탕에는 국민의 하나 된 힘이 있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 3월 넷째 금요일, 우리는 '국민의 하나 된 마음'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제3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서해수호 희생장병을 추모하고 범국민 인보의식을 북돋으며 국토수호결의를 다지고자 한다.

우리는 이날을 통해 그들의 애국심을 되새기며 이 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날로 하여야 한다.

오는 23일 금요일 '제3회 서해수호의 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Daedoo Today,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 address.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 E-mail : d-mail@hanmail.net ▷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요망.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상담문의 041-736-7200  
학교 조형물 리모델링(보수, 도색)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kidp

KIBO  
벤처기업인증

All children are artists. The problem is how to remain an artist once he grows up. *Pablo picasso*

더 큰 사랑을

# 보다!

스승 존경과 제자 사랑으로 넘치는 사제간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 공간 - 학교

학교에 설치되는 환경조형물은 아이들의 생각을 실내공간에서 벗어나 실외공간으로 확대하여 자연공간과의 친화성을 높이고 미적 감수성, 창조성, 정서성을 배울 수 있으며 보다 넓게 인간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아실현과 협동 봉사하는 태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조형물의 설치는 폭 넓은 생각과 시각적 재미를 경험하게 되고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긍정적인 성격형성과 지적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학습의 간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작 품 명 사제상(특허등록)

작품크기 1250\*720\*2500

작품특징 사제상은 스승은 사랑으로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작품

30년 전통의 조형물 전문회사  
www.hd-space.com

학교조형물 다보보랜드

Artschool I LOVE  
Environmental sculpture

국내 유일 학교조형물 전문회사 (주)현대공간조형이 사랑으로 만듭니다

- 30년 역사와 전통의 환경조형물 전문업체의 품격
- 새로운 공법특허 제작공법으로 경제적인 부담 최소화
- 최고의 작가, 최고의 작품의 예술성이 높은 조형물
- 안전하고 반영구적인 조형물

- |        |               |           |     |
|--------|---------------|-----------|-----|
| 도원초등학교 | 죽림초, 죽림초, 죽림초 | 연봉초등학교    | 사제상 |
| 권양초등학교 | 가죽초           | 월명초등학교    | 동상  |
| 도당초등학교 | 유곡            | 속초삼거리 유곡초 | 사제상 |
| 나래초등학교 | 사제상           | 석성초등학교    | 가죽초 |
| 석양초등학교 | 사제상, 가죽초, 가죽초 |           |     |

조형물 / 조형사상물 전문기업 (주)현대공간조형

조형물 전문상담 041.733.9558

www.hd-space.com